

처음 글쓰기 연습



유페이퍼

박연호&ChatGPT공저

처음 글쓰기 연습

프롤로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글을 쓰게 될까? 우리가 처음 글을 쓰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기억도 나지 않는 순간일 것이다. 유아기에 한글을 배우고 글자를 깨우친 것을 글을 쓴다고 할 수 없다. 아마도 우리의 첫 작문은 학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희미한 기억의 꼬리를 더듬어보면 그것은 아스라이 먼 추억의 이미지로 다가올 것이다.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였던 어버이날 부모님께 쓴 감사의 편지나 카드이든, 친구에게 건넨 첫 마음이든. 그런 글은 어찌하면 우리의 인생이고 마음이었다.

자라면서 우리는 글을 진정 마음으로 쓰는 일 따위는 사치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글쓰기는 공부와 취업과 업무의 연장으로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학생들은 작문에 어려움을 겪고 취준생은 자기소개서를 위탁하며 직장인들은 기계적으로 업무메일 써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또한 그러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글쓰기를 하며 순수한 기쁨을 얻은 적이 있었기에 감히 그 작은 행복한 기억에 의지해 이런 글을 써본다.

처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쓴 날의 밀려오던 잔잔한 노을과 같은 기쁨과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시는 부모님의 미소, 잘 써진 자기소개서가 바꾼 운명과 같은 합격 등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글쓰기는 사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있었다. 다만 우리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아니라도 글쓰기 연습은 생활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 직원들에게 보내는 업무메일 속 따스한 한마디는 모든 직원의 하루를 같이 빛낼 수 있다.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는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글쓰기 연습을 해야하는 그 어떤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랑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가나 유명작가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세상 모두가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모두 작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재미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볍게 읽고 슬쩍 써보기가 이 책의 핵심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1.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고 외치고 싶은 당신에게 -일기를 이용한 나만의 대나무 숲 만들기

일기 작성을 통한 자기표현과 감정 정리

오늘 하루도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울분에 터진 일들이 있었던 당신에게 물어보자. 갑자기 학급 친구에게서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로 당장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분명 가장 친한 친구나 그와 비슷한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울분을 터트릴 것이다. 그러나 매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거나 남의 험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런 후엔 항상 뒤끝이 짹짹한 마음을 견어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깨끗한 흰 종이나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천원 짜리 노트 하나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펜을 같이 찾아본다. 그리고 식탁이든 책상이든 커피숍이든 자리를 잡자. 되도록 음악은 듣지 않는다. 눈을 감고 조용히 화가 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드라마 본 것을 기억하듯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글로 적어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일기가 될 것이다. 문학상에 응모할 소설도 아니고 방송국에 제출할 극본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얘기를 하듯이 솔직한 감정으로 써내려가자. 상황을 다 쓰고 나의 마음에 대해 적으면 그것이 바로 일기이다. 다 쓰고 나서 커피를 다시 마시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글을 다시 읽어보자. 바로 찢어서 구겨 쓰레기통에 넣고 싶음 마음이 들더라도 꼭 참고 천천히 잘근잘근 오징어를 씹듯이 읽는 게 포인트이다. 직장 상사의 욕을 할 때 우리는 오징어를 씹듯이 아주 꼭꼭 잘근 잘근 씹지 않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자. 그러다 보면 나의 일기를 객관화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한 발 물러나게 된다.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면 상대방도 다르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천천히 대응했다면 침착하게 설명했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단 글을 읽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이 더 컸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엔 더욱 화가 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또한 나의 감정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참는게 아니라 화를 분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더 이롭다. 화를 분출하고 나면 감정은 정확된다. 화는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평온을 찾기 위해 내는 것이다. 나만의 화를 받아줄 노트를 하나 마련하는 건 나의 투정을 받아줄 친구를 찾는 것보다 훨씬 간편한 일이다. 친구는 바쁘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약속을 어길 수 있다. 노트와 펜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가 일기를 적어주기를 기다린다.

학교 다닐 때의 숙제처럼 시간 순서대로 적을 필요도 없고 검사해서 참 잘했어요. 사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감정을 가만히 어루만져줄 나만의 일기를 써보자. 이런 일기를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인생의 깊이도 깊어질 것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에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 가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퇴근해서 웃고 떠들며 드라마나 예능을 두세 시간씩 보면서 잠시 앉아 몇 줄의 글을 적을 여유는 없다고들 한다. 시간이 없는 것일까 마음이 없는 것일까 후자가 아닐까.

어떤 일이라도 어떤 마음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나만의 일기장을 하나 갖는 것은 현대인에겐 지나친 사치일까 무수한 인스타그램 사

진 속 멋진 장소와 음식 사진에 부러워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 말고 나 자신과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에 일기쓰기이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자. 그다지 성공적이지도 화려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알고 있다. 그러니 아무말이나 써보자 앞집의 똥개가 오늘 나를 보고 짖었다 라고 한줄 만 적어넣어도 좋다. 그 똥개가 언젠가는 나에게 작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은 맛있는 차를 한잔 시키고 펜을 들고 마음을 써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다. 다 큰 사람이 일기나 끄적거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셨고 그것은 중요한 역사의 기록임과 동시에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고 적어놓은 나의 인생이 나중에 어떤 자료가 될지 모른다. 노트에 적은 글이나 블로그에 올린 짧은 글들 모두가 소중한 글인 것이다. 이런 매일의 글쓰기 연습은 점점 단단한 실력을 쌓는데 기초가 되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발판삼아 그 다음의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간단한 메모도 엄연한 글이다. -글쓰기의 시작으로 메모부터 하라.

메모도 당연히 글이다. 메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언제부터 이었는지 모르나 우리가 현인이라 일컫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의 글의 길이를 보자 메모와 다를바 없이 짧다. 짧은 글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자. 우리는 메모라고 하면 정보의 전달만을 생각하는데 짧은 메모에도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장보려고 적는 쇼핑 리스트에 목적을 써넣는 일은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집들이 음식 준비 쇼핑 목록을 적을 때 (집들이 대상은 시댁식구들이라 가정한다.)

음식 장보기 갈비찜 고기, 과일, 전의 재료 등등 목록만 나열할 때보다 제목을 붙여주면 어떨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멋진 집들이 음식 만들기! 이라고 메모에 제목을 붙여주자. 벌써부터 놀라실 부모님의 커다란 눈동자를 상상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중요한 재료를 사야할 중요한 메모목록으로 변하게 된다. 단지 제목만 달아주었을 뿐인데 우리의 뇌는 단순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행할 리스트로 인식하는 것이다.

메모의 글은 당신의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옷 쇼핑 메모의 예도 들어보자. 가을 되어 바람이 차가워지면 옷장을 열어젖혀서 작년에 입던 옷들을 전부 뒤져보아도 입을 만한 옷이 없다. 신기한 마법이다. 작년 가을에 별거벗고 다닌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많은 옷들이 있었는데 딱히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게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심지어 옷장에 옷들이 줄줄이 걸려있는데도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새 옷을 장만하고 싶은 핑계를 대며 매장에 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보기 위해 또 종이와 펜을 준비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을 나열해 적어보자. 코트 몇벌, 스웨터 몇벌 스커트 몇벌 그 옷들의 명칭 옆에 색상도 적어 넣는다. 기존의 가지고 있는 옷들과 어울릴 옷이 없어서 입을게 없는 것이지 꼼꼼이 생각하고 따져보자. 옷은 있지만 낡아서 유행이 지나서 입고 싶지 않아 새 옷이 사고 싶다면 우선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에 새 옷을 사서 그 자리를 채워넣자. 멀쩡한 옷을 버리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옷을 버리지 못한다고(실제로 나또한 그러하다.) 그럼 결국에 옷더미에 쌓인 채 입을 옷이 없어 출근 때마다 짜증나는 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옷을 사기 전에 구매 이유를 명확히

적고 왜 필요한지 적어보자 예를 들면 가을에 맞는 트랜치 코트가 필요할 때 바람을 막아주는 포근한 가을 내음이 물씬 풍기는 코트 구입하기라고 써보는 것이다. 그냥 코트 사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왜 필요한 지 한번에 알 수있다.

여행 준비 메모 및 계획도 이런 식으로 써보자. 여행을 맛집 탐방이나 인스타그램 과시용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여행에서 얻는 순간의 행복인 느낌을 글로 남겨보자. 그럼 그 여행은 훨씬 더 의미가 부여된 여행이 될 수있다. 놀러가서 그저 돈을 쓰고 맛있는 것만 먹고 온 여행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는 여행이 되는 것이다. 여행의 제목도 정해보자. 그냥 가족여행이 아니라 행복한 우리 가족의 여름휴가 보내기 대작전이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제목을 정하고 테마별 주제를 정해 여행 테마에 맞게 동선을 짜고 할 일을 계획해 보는 것이다. 자녀가 있다면 여행계획에 아이들도 동참시켜보자 각자 여행하서 하고싶은 일을 글로 적어오게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적을 때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여행가서 맛있는 음식먹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쓸데 없는 메모가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정을 정했으면 구체적으로 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인지 적어야한다. 그럼 여행계획을 세울 때 그 곳의 상세한 정보를 구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일정을 짤 수 있다. 상황에 맞게 상상을 해보고 거기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실제로 높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괌의 바닷가 바 앞에서 바닷물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 칵테일을 마시고 싶다고 메모를 했다면, 어떤 해변으로 정할 것인지 날짜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여행계획표에 바닷가 앞에서 칵테일 마시기 라고 적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입을 옷과 쓰고 있는 선글라스 및 칵테일의 색깔, 바닷물의 반짝임, 어떤 노래가 들려오면 좋을지 써보고, 여행가서는 바텐더에게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해 보자 더욱 근사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메모작성의 생활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적는 메모는 사실 잊기 위한 메모인 것을 아는가? 우리는 메모를 적어서 모으지 않는다. 메모를 잘 써서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키려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더 강력하게 머리에 새겨넣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메모로 전달해 보자. 흔히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는 으르렁 대기 일쑤이다.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아이들에게 한마디의 말이라도 대충 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일쑤이다 게다가 부모가 이런저러 말을 늘어놓는 순간 아이들은 잔소리로 인식해 버린다. 그런다고 아예 가족들과 말을 하지 말고 메모로만 살라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여 두 번 하기 힘들거나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자주 잊어버려 환기를 시켜줘야 할 할 일들은 다정한 말로 적어 메모로 전달 해보자. 짧은 편지 같기도 한 메모로 이렇듯 의사전달을 해보면 나중에 긴 편지로 넘어가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우리는 처음 글쓰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사용설명서부터 광고 기사 방송등 우리 생활은 모든게 글쓰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써놓은 글을 읽지만 우리가 쓰진 않는다. 수동적 인풋만이 반복 될 뿐이다. 나만의 감정과 목적을 담아 메모쓰기를 연습해보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누구도 메모를 쓸 때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메모를 써보자.

단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중간에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적절히 섞고 상대방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적어보자. 전혀 새로운 메모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에게 출근하면 내가 냉장고에 ‘하교후 문제집 풀기’라고 적어놓는 것과 ‘사랑스러운 OO아 엄마는 OO이가 학교 다녀와서 문제집을 다 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저녁에 엄마랑 재미있게 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따가 보자!’라고 써 붙이는 것이다. 앞의 메모와 뒤에 메모가 전달하는 내용은 같아 같은 내용을 의미를 전달하는 글이지만 전자와 후자를 읽었을 때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전자는 명령을 받은 것 같고 왜 엄마의 지시를 내가 따라야 하지 난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렇듯 일상의 메모가 단순한 낙서로 취급되기 보다는 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게 생명을 불어넣어 보자. 작은 메모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3. 일상에서의 소소한 느낌을 글로 써보기-관찰과 공감

이 부분은 사실 일기쓰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르다. 예를 들면 일기는 하루의 어떤 소감과 시간의 흐름, 그 날의 나의 느낌이 주를 이룬다면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로 글쓰기를 할땐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느낌이 그 글의 주축을 이룬다. 며칠을 통틀어 어떤 우울함이 관통하고 있던 날에 문득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나, 이른 새벽 갑자기 깨어나 해가 떠오르는 새벽 하늘을 봤을 때의 감동 같은 것이다. 자연의 일부에서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문득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글을 잘 써낸 것이 바로 에세이이다.

몇 달전 봄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버스는 사람으로 혼잡했고 오랜만에 출장길이라 아이보리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서류 가방도 있어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데 갓 스무살이나 되어보이는 학생이 봄 햇살을 받으며 즐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단한 청춘이지만 눈부셔 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쪽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본인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신다. 금방 내려 괜찮다고 웃으면 감사인사를 드리니, 참 곱다라고 하시는데 아닌가. 마흔이 넘은 나를 보고 참 곱다라니 칠순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의 눈에는 내가 그저 싱그럽고 젊고 어여빠 보이셨나보다. 다시 할머니를 찬찬히 뜯어보니 머리가 하얗게 되셨지만 곱게 빗으셔서 웨이브하시고 얼굴이 달덩이 처럼 환하시고 입술에 연분홍 립스틱을 곱게 바르셨다. 고운 할머니이시다. 마흔이나 넘은 여자를 보고 곱다, 예쁘다 해주실만큼 넉넉하고 고운 품성을 지니셨다는게 얼굴에 환히 드러나있다. 그러한 할머니로 늙고 싶다. 풍요로운 마음과 깊은 지혜로 세상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이들고 싶다.

가족들과의 일상을 글로 남기는 것은 어떠한가. 아이가 어릴 때 육아에 지쳐 물에 말은 밥도 서서 먹는 시절이 있었다. 급하게 밥을 입에 몰아넣고 우는 아이에게 젓을 물리면서 한숨이 나기도 하지만 배가 고파 허겁지겁 젓을 먹다가

도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그게 좋아 헤벌쭙 웃다가 입 옆으로 모유가 주룩 흐르고 했다. 그 눈빛과 미소는 아마 아이를 키워 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마법같은 순간일 것이다. 고된 일상과 지치는 마음을 한번에 일으켜주는 일종의 기적이다. 이런걸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정 행복한 삶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한장 차이이다.

아주 소소한 이야기도 좋다 며칠 전 출근길의 일이다. 버스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 날따라 버스가 일찍왔다 100미터 앞에 정류장에선 버스를 보는 순간 놓쳤구나 하는 생각에 뛰던 발걸음을 느리게 하던 바로 그 순간 출발하려던 버스가 나를 기다려준다 다시 힘을 내어 뛰어본다. 험레벌떡 올라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오세요’ 기사님의 인사를 들으니 감사한 마음이 차오른다. 사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셔도 잘못이 아니다 저 멀리 한 아줌마 정신없이 뛰어와서 그냥 출발해 버리는 기사님들이 많아 그다지 서운하지도 않다 추운 겨울에 정류장에서 20분이 넘게 떨어야하지만 시간계산을 잘못하고 나온 것을 누구를 탓할 것이지만 기다려주신 기사님의 작은 호의로 인해 20분을 길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직장에 지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순간은 아직 세상을 살아갈 만큼 따스하고 정겹다는 마음이 가득차게 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작지만 기쁨을 주는 호의를 베풀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호의와 친절들이 고리의 고리를 이루어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하루도 따스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니 그 순간의 행복한 그 마음과 느낌을 이제 글로 옮겨 적어보자. 나와 같은 이런 작고 소소한 에피소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글로 남기게 되면 그 소소한 기억은 저장되고 생산된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남긴 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잘 붙들어서 종이나 컴퓨터에 남겨보자. 그 반짝거리는 기쁨과 감동이 그대로 녹여져서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보자.

그럼 그것이 에세이이다. 잘 쓴 에세이든 못 쓴 에세이든 작가의 어떤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작가가 공감하고 같이 웃고 슬펐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에세이를 쓸만 한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가족, 직장, 친구 심지어 물건을 사기위해 들어간 매장, 식사를 하기위해 방문한 식당에서도 우리는 사연이 생기고 어떤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을 솔직하게 나만의 시선으로 담담히 풀어내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당장 우리 가족과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친구하듯 말하듯이 편하게 정리해 써보자 우리가 친구에서 수다를 떨 때 진지하게 기승전결을 고민해서 말하지 않듯이 되는대로 써보자. 그리고 다 쓴 후에 빨간 빼고 더할 건 더하면 된다. 우선 쓰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쓰기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4. 간단한 카드 작성법과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쓰기 연습

전화가 없던 시절의 멀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다. 지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웹 편지나고 할 수있겠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전화나 영상 통화등이 활성화되어도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남편회사에서도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임원이 직접 쓴 카드를 직원에게 건넨다. 종이에 인쇄되거나 문자가 아닌 손으로 쓴 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왜인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는 분위기를 풍긴다. 그 카드를 구입해서 펜을 들고 한 글자 한글자 카드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고, 글씨체에서 오는 느낌과 감정이 살아있고 진심이 묻어있다. 촌스럽게도 아직도 나는 어버이날이나 부모님의 생신에 카드를 사서 악필이지만 정성스레 글을 쓴다.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생일 선물 대신 편지나 카드를 요구한다. 그 글을 쓰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본인의 마음을 듬뿍 담아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다.

오해나 싸움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전화해서 말로 풀거나 대면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뜻대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말을 잘못해 더 큰 오해를 낳기도 한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땐 반성문을 내가 다툼이 있을 때는 사과의 글이나 편지를 써본다. 업무 중에도 직접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업무메일이나 메신저로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우선

내가 잘못된 점과 상대방이 고쳐주었으면 하는 점을 같이 적어 앞으로의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본인의 잘못먼저 시인해 버리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면 그 사람은 일단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원하는 점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의견을 따라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지쓰기는 어렵다. 왜인지 말로 할때보다 글로 하면 손과 발이 더 오글거리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오랫동안 오해가 쌓여 말도 않고 지내던 형제나 자매사이의 화해를 이끌어 낸다던지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던지 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편지나 글로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글을 쓸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하지 하면서 포기해버린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쓴 편지를 빨간색 펜을 들고 맞춤법 교정을 한다던가 문법이 이상하다고 어순이 틀리다고 점수를 매긴다거나 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그 편지에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담기면 된다. 솔직하고 진심인 마음을 담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화려한 어휘를 써서 어려운 말들을 섞어서 고상을 떨 필요는 없다. 사실 어려운 말들과 혼계조로 작성된 편지는 진짜 편지가 아니다. 본인의 잘난 척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글로 적어서는 안된다. 오래 보지 못한 친구에게 카드나 편지를 써야한다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모습 만나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먹는지 근황이 궁금하다고 적으면 된다. 마음에서 우러난 이런 안부를 솔직하게 적는 것이 진정한 편지인 것이다. 심지어 유명작가의 편지는 문학작품으로 남아있다. 그런 거창한 작품의 되지 않더라도 보고 싶은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부끄럽게도 나의 부모님에게 쓴 편지도 어느 덧 작년이다. 생신날이나 특별한 기념일 예를 들면 팔순잔치 같은 날이었던 것 같다. 기념할 만한 날이니 나 또한 용기 내어 부모님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꼭꼭 눌러 써본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가족에게 글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날도 아닌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때나 문득 가족들과의 추억이 떠올라 슬며시 미소

지을 때 그 때가 바로 펜을 들고 가족에게 카드나 엽서나 편지를 쓸 때는 아닐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약간은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외국사람 보다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에 상당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짐짓 체면 차리는 듯이 엄숙한 얼굴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훈계조의 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속마음은 아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도 말은 딱딱하게 나오기 일쑤이다. 얼굴을 보고 말로 하는글 글보다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쯤 마음을 먹고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마음을 간단한 글로 적어 보는건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에 큰 비용도 희생도 따르지 않는다. 단지 마음의 여유와 한 시간 남짓의 시간, 고요한 장소면 충분하다.

5. 필요에 의한 글쓰기 작업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인 자기 소개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자기소개서이다. 나의 학창시절과 달리 요샌 스펙은 기본이고 면접과 자기소개서도 취업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다. 서류야 학벌이나 자격증을 많이 볼텐데 무슨 소리가냐고 한다면 요새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최근의 국내 유명 그룹도 유명대학학벌을 가진 성적우수자 보다는 화합과 협력이 잘되는 인재를 선호한다. 잘난 공부머리로 혼자서 일하는 천재보다 사람들과 협업해 뛰어난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이다.

실제 나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소개서가 취업의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아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하다.

무려 15년 전부터 남편은 이직에 상당한 열정을 쏟았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던 남편은 매년의 연봉협상과 손쉬운 감원의 충격을 받고 30대 초반부터 회사가 자신을 버리기 전에 회사를 떠난다는 철칙을 세웠다. 경력직 채용에 관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고 취업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데이트 했다.

남편의 이력은 본인이 만들었지만 자기소개서는 남편의 말을 내가 적어서 같이 수정했다. 일종의 아름다운 협업이었다. 자기소개서의 본인의 어릴적 얘기나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적는 것은 예전의 얘기이다. 그럼 어떤 자기소개서가 좋을까? 삶의 전반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본인의 품성이나 인성의 강점을 잘 드러내주어야 하고, 회사에서 그런 강점이 어떻게 작용해서 성과를 발휘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

예를 들면 남편의 무기는 성실함과 배려, 이타적인 면인데 어릴 적 어려운 가정형편에 부모님의 일을 도운 것을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함으로 승부를 본 것 등 자세히 적고 위기에 강한 것은 졸업을 앞두고 생활비 없이 캐나다 어학연수를 혼자 떠나 일부로 한국 사람들이 없는 학원을 다녔던 점 또한 미국에서 장애인 인솔 관광 가이드를 함으로써 봉사도 하고 숙식 제공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고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성실 인내 끈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이러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후반부엔 회사에서 특별한 성과를 낼 때 본인이 강점을 적용한일을 적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과 좋았던 점을 적어 넣는다.

우리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보면 '사회생활 못 할 사람이네'라는 말을 하곤 한다. 회사에선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같이 한다. 본인만 잘 났다고 으스대는 명문대생은 곧 자신의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학벌과 자격증 같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협업해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올A를 받아 성적이 높은 우수생은 학교에서만 우등생일 뿐이다. 물론 회사에서도 머리가 좋으면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으로 볼 때 이기적으로 본인의 성과만을 위해 달리는 사람은 어쩔땐 조직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항상 구성원간의 협조가 잘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던 사례, 고객에게 진심을 다해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낸 실제 사례 등을 적는다.

자기소개서를 소설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요샌 돈을 주고 자기소개서 작성

을 그럴듯하게 써주는 일도 비밀비재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 글로 합격했는지 나는 너무 궁금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그 하늘은 본인만 못 보게 되는게 이치이다.

이직을 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자신이 어떻게 일해 왔는지 알게된다. 지금 현재 직장에서도 업무의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뽑아주길 바라는 사람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현 직장이 싫어서 급여나 조건 때문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직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자기소개서는 보나마나 뻔하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하고 싶어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소개서를 써낸다. 우리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글이어야 한다. 진정한 나의 강점을 담아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보기 바란다. 잘 쓴 자기소개서 한 장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는 10년간 조금씩 고쳐 쓴 자기소개서로 남편의 지금 직장에 이직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만족하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 경력직 채용 서류 심사를 통과한 마지막 3명중 남편을 제외한 두 명은 초일류 명문대생이었지만 결국 최종합격은 남편의 몫이었다. 면접에 참여했던 임원은 서류심사에서 올라온 자기소개서를 읽고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셨다고 한다. 모든게 합격했으니 하는 말 같이 들릴지 모른다. 자기소개서를 쓸 무렵의 난 글을 잘 쓰지도 못했고 어떻게 써야할지도 몰랐지만 다만 그 글에 남편의 진심과 열정을 녹여냈고,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알아봐 주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최종합격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보고 발전의 기점으로 삼아보자. 글쓰기의 진정한 효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멋들어지게 써서 심사위원들의 눈물콧물을 빼어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있을지 일종의 자기점검표 같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나타나있고 표현된 글로 자기소개서를 적으면 합격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너스가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남편은 4번의 이직만에 원하는 회사에 최종합격했고, 학벌과 인맥을 따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기적과 같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몇만원의 돈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내용처럼 써진 쓰레기 같은 자기소개서 말고 본인의 진심과 목표가 있는 살아있는 자기소개서를 꼭 한번 써보기 바란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솔직하고 진심이 담기게 써보기만 하면된다, 자기소개서가 수학공식처럼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온 마음을 다해서 쓴 자기소개서에 열정은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되어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노련한 임원들에게는 이미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니다. 마치 여우와 같이 본능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합격만 목표로 했다가는 쉽게 들통이 난다.

6. 글쓰기 연습의 최종목표 - 자서전 쓰기 -나의 인생이야기를 써보기

작가가 아닌 여러분의 글쓰기의 최종목표는 나의 자서전 써보기로 하면 좋겠다. 소설가가 아닌 이상 창작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라면 서툴지만 충분히 써볼 수 있다. 보통 자서전은 과거의 나의 인생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유명 인사들의 자서전을 보면 과거의 특정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숨겨진 비밀들을 적어서 독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서전 쓰기는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야할 이유가 없다. 마치 평생을 한 권으로 만든 일기장처럼 나의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을 잘 기록하면 된다. 재벌이나 정치인들처럼 큰 부나 명예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쓰는 자서전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류의 자서전에서는 영혼에 해를 끼치는 불쾌

한 향이 난다. 본인의 성과와 업적을 떠벌리기 위해 잔뜩 멋을 부린 그런 자서전은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 올라가 기억을 환기시키고 지금 우리를 있게한 경험과 추억을 되살려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직업으로 가지지 못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또한 그랬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소녀는 지금 전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직장을 다닌다.

유치원 때인가 사실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희미하지만, 집이 가난해 읽을 책이 많지 않았던 시절 호두까기 인형 동화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 책을 묶은 실끈이 다 헤져 책종이들이 다 풀어진 적이 있었다. 좋아하는 단한권의 동화책이 망가졌던 순간의 낭패감이란 세상이 무너진 듯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 부모님은 무심하셨던 분들이 잘 모르시고 별일도 아닌 것에 오래 운다고 혼내셨다고 했다. 7살의 그 울보 아이는 지금도 책을 사랑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평상에서 대여섯명의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옛날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등을 몇 시간이 혼자 떠들어댔다고 한다. 지금도 그래서 말이 많은가 보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빨강머리앤과 비슷하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조금씩 과거로 기억을 더듬어 가다보면 결국엔 나라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 7살의 나와 중년의 나는 이어져 있다. 기억들을 상기시키기 어렵다면 자서전의 재료를 얻기 위해 부모님, 형제, 친척들에게 나의 어릴 적 이야기나 특이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의외의 일들도 있고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나는 중요한 사건도 있을 것이다. 기억하지 못했던 일이나 기억했던 일이나 그 외의 모든 일들의 경험과 추억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무엇이 아닐까? 이러 재료를 많이 수집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그때의 경험과 강점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글쓰기의 재미를 알게 해준 사건이 있다. 중학교 때 독후가 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읽은 책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것보다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때 그 기분과 하늘 빛깔과 시간이 멈추는 듯했던 기분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난다. 그것은 아마도

완전한 몰입의 순간이었다. 가족들이 집에 없기도 해서 창가 쪽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원고지에 글을 쓰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바람이 창가를 통해 시원하게 불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한번에 바로 글쓰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읽었던 책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 느낌이 들어서 현실이 어딘지 구분해지지가 않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그 후로 글을 쓰면서 다시는 느껴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기억만은 생생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극한 즐거움이 온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릴적 이런 강력한 추억으로 인해 지금도 나는 무언가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게 특별하고 천재적인 재능은 없더라고 엉망진창인 글을 써내려가도 마냥 즐겁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런 기억이 반드시 하나쯤을 있을 것이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커다란 기쁨을 가져왔던 순간이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무작정 좋아했던 일이나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일들을 적어보자.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일을 좋아했었나 생각해보자.

자서전 쓰기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기억과 추억들 사이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 떠나는 것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해야한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성적순으로 세워졌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취업에 전념해야했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설 새없이 달려왔다. 결혼하고 직장을 잡아서 남들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쳐야했다. 나를 돌아보고 인생을 되짚어 보고 자서전을 쓰는 일을 퇴직하고 나서 너무나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해서 하는 일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서전 쓰기는 내가 삶을 마칠 때 후회에 차서 하소연 하듯이 쓰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나를 바로 세우고 미래의 나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가지기 위한 인생 재설정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작업인 것이다.

자서전이라는 글을 쓰면서 나의 기억의 조각과 경험 속에서 진정 찾아냈어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건져 올려야한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어떤 기억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어떤 기억은 희망과 꿈을 준다. 우리는 이제 그 퍼즐들을 들고 하나씩 끼워 넣어 큰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그림이 아름답거나 훌륭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그 퍼즐판은 거꾸로 뒤집어서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조각으로 다시 우리만의 인생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퍼즐 조각이 있어야한다. 자서전을 써보는 일은 그 퍼즐조각을 구하는 일이다, 예쁘고 반듯한 조각만이 모여서는 퍼즐을 맞출 수없다. 모서리지고 구석진 부분 각진 부분 비뚤어진 부분은 슬픈 기억, 아프고 힘들었던 추억들까지 모두 모아야 한 그림이 완성된다. 전체를 볼 때 인생의 색은 총 천연색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핑크빛이고 모두가 잿빛인 사람은 없다.

우리의 자서전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지 알게 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할지를 느끼게 되는 이야기 여야한다. 자서전 글쓰기는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에 대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글쓰기의 최종 단계는 당연히 자서전 쓰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서적 쓰기의 전과 후는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삶의 시작으로 이끌어 갈 수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글쓰기 연습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글쓰기 연습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는 글

작가가 아닌 사람의 글쓰기연습에 관한 글을 읽는라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누구나가 말을 하듯이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기 위해 말을 하듯 글을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로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나만의 글쓰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살기가 만만치 않은 요즘같은 시기에 작은 희망과 기쁨을 글쓰기로 느끼는 삶을 살고 있어 행복했던 사람이 주저넘게 써보는 이 짧은 글이 조금 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